

은행 가계 신용대출자 105만명 늘었다

지난해 말 은행 신용대출 145조...5년간 35조 늘어 대부분 고신용자 대출...운창현 “중신용자 문턱 낮춰야”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가 105만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은행들은 대부분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줘 순위순이자 장사를 하면서 중저신용자는 외면해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1천

명으로 2018년 말의 510만명에 비해 105만1천명이 늘었다.

이 기간 모든 연령층에서 가계 신용대출자가 늘어난 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4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말 3만3천명에서 지난해 말 50만2천명으로 2만9천명 늘었고, 40대의 경우 15만9천명에서 18만4천명으로 3만5천명이 급증했다.

30대는 이 기간 16만8천명 증가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9만1천명과 13만7천명이 늘었다.

지난해 말 은행별 가계 신용대출자

는 KB국민은행이 120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93만7천명), NH농협은행(80만3천명), 신한은행(79만6천명), 하나은행(78만5천명), 우리은행(67만3천명), 케이뱅크(48만3천명), 토스뱅크(27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45조6천467억원으로 2018년 말의 110조6천87억원보다 35조380억원 늘었다.

40대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52조8천649억원으로 2018년 말의 39조1천481억원보다 13조6천533억원이 늘어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또 50대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9조9천832억원, 30대가 6조8천340억원, 60대가 2조8천557억원, 20대가 1조7천69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가계 신용대출 잔액 32조9천210억원으로 최다였다.

이어 신한은행(26조6천499억원), 우리은행(19조8천425억원), 농협은행(19조3천180억원), 하나은행(18조7천634억원), 카카오뱅크(12조7천627억원), 케이뱅크(8조2천718억원), 토스뱅크(7조1천624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형태가 대부분 고신용자 위주로 순위순이자 장사를 하고 있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가계 신용대출자 615만1천명 중 448만1천명이 신용점점 800점 이상 고신용자였으며 가계 신용대출 잔액 145조6천467억원 가운데 117조1천539억원이 이들이 빌린 돈이었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고신용자 토대

의 이자 장사를 통해 역대급 실적을 올려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고신용자에 집중된 순위순 영업으로 수익이 늘었지만 반대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위주로 영업하다 보니 연체율 등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연체율은 양호한 편이라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달라지는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고소득자와 자산가 등 최고 신용등급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신용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장성 '현농프레쉬'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2일 2023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장성 나노 소재 '현농프레쉬'를 방문,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10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됐다.

이중 첫 번째로 현판 수여식을 가진 현농프레쉬는 농산물 수출 전문기업으로, 8개국에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한국산 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양시원기자



“천도복숭아 맛보세요” 농협유통이 12일 올해 첫 천도복숭아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천도복숭아를 소개하는 모습. <농협유통 제공>

광주은행, ‘또만나요!’ 이벤트

연말까지 비대면 가입 고객 선착순 CU 쿠폰 지급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또만나요! (CU Agai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2천좌에 CU편의점 쿠폰 5천원권을 지급한다. 쿠폰은 대상 상품별 1매, 개인당 최대 총 6매까지이며, 응모는 필수사항이다.

먼저 20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이벤트 대상 미보유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상품을 신규 가입 시 쿠폰을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편드(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개인IRP(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외화적금(정액식, 6개월 이상, 미화 100불 이상) ▲외화예금(6개월 이상, 미화 1천불 이상) ▲일일형ISA(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이 있다.

다음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된 신용카드 보유 고객 중 2022년 5월 1일~2023년 5월 22일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없고, 이벤트 기간 내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쿠폰을 지급한다.

경품은 이벤트 기간 내 해당 이벤트에 응모하고 전원(1일-말일) 동안 이벤트 조건을 충족 시, 익일 10일에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응모는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에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뱅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지난 가정의 달 이벤트에 이어 비대면 채널 고객을 위해 추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금융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과 이벤트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광주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올인원 실무캠프 교육생 모집

사물지능·폴스택·언어지능 교육과정 신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언어지능·폴스택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올인원(AI-All-in-One) 실무캠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9일 광주점에서 첫 선보이는 인공지능 올인원 실무캠프는 사물지능(자율주행), 폴스택(MLOps·7월4

일 개강), 언어지능(GPT·7월4일 개강) 등 분야에 따라 구성됐다.

자율주행과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활용부터 기반 기술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언어지능 실무캠프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자연어

처리 모델 개발 ▲인공지능 알고리즘(답라닝) 등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관련 지식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 재학생, 대학원생, 고졸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맞춤형 취업프로세스, 실무 중심 프로젝트 및 멘토링과 함께 300여곳이 넘는 굴지의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

/양시원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북쪽이나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문진원-남부대, 문화콘텐츠 발전 MOU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남구 송하동 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남부대학교와 지역 ICT·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ICT·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ICT·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성장 상호협력 ▲ICT·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상호협력 ▲ICT·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보교류와 홍보협력 ▲진흥원 보유 인프라(시설·장비) 공유 및 활용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인공지능 콘텐츠융합창작랩(AICL)을 구축해 공간·장비 대여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난 5월 실감콘텐츠 전문 평생 교육 플랫폼 GCC아카데미를 오픈하는 등 광주의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남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 보유 장비, 시설 등을 적극 활용, 첨단기술 발전에 맞춘 지역 인재 배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2019 광주매일신문 제6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식
장소: 폴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 1

창조클럽 아카데미 6기 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6기 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